

인천아트플랫폼 2025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 - 최종 심의 결과 안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 사업>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 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의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8.

☐ 최종 선정자 명단

1. 인천아트플랫폼 2025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가. 시각예술부문(6개월/2025년 6월 ~ 2025년 12월)

번호	접수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	202504070006	김OO	4922
2	202504170019	이OO	3169
3	202504190026	강OO	7374
4	202504200027	권OO	9892
5	202504200034	원OO	1832
6	202504210043	엄OO	8673
7	202504210046	최OO	6515
8	202504210049	김OO	5629
9	202504210062	최OO	0940

나. 다원예술부문(6개월/2025년 6월 ~ 2025년 12월)

번호	접수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	202504210039	정OO	9220

☐ 예비 선정자 명단

- 인천아트플랫폼 2025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구분	접수번호	성명
차순1	202504210055	석OO
차순2	202504210050	김OO
차순3	202504190022	이OO

☐ 입주 절차 및 오리엔테이션

- 입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실기간 : 2025년 6월 23일(월) ~ 6월 27일(금) 중
- 입주 오리엔테이션 : 2025년 6월 19일(목) 14:00, 인천아트플랫폼 A동 교육실 예정
 -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된 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계약서 작성, 입주 관련 안내, 스튜디오 배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업실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이메일(6/12(목) ~ 6/17(화)) 안내에 따라 희망 신청 1순위를 받으며, 중복 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안내합니다.
- 준비사항 : 오리엔테이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요
 - ※ 입주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심의평

인천아트플랫폼 2025년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 심의평

2025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에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분야에서 총 69명(팀)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의를 통해 20명(팀)의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 10명의 입주 예술가를 선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영상, 미디어, 설치, 평면, 퍼포먼스 등 각 장르별로 매우 다양한 표현방식과 경향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아 작가들의 진취적인 작품내용과 수준, 입주에 대한 동기와 계획, 작업에 대한 스테이트먼트 등을 두루 고려하였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도자, 전통 동양화, 섬유예술 뿐 아니라 AI와 데이터, 디지털 미디어 등 매체와 재료에 대한 새로운 탐구에 몰두하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였으며, 공연예술과 다원예술 분야의 실험적 시도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동양화 기법을 바탕으로 한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많아 인상적이었으며, 이들은 동양화의 전통적인 기법을 동시대적인 언어로 풀어내는데 있어 매우 신선하고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회화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매체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평면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디어와 설치를 다루는 작가들 역시 새로운 시도와 구성을 통해 작업의 방향성을 넓혀가고 있었고, 공연 및 다원예술 분야에서도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성과 자기 작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많은 지원자들이 인천 지역의 간척지를 사생하거나 외곽 지역을 관찰하면서 도시를 캔버스 삼아 예술적 개입을 시도하였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비인간 개체 등 사회구조 속에서 누락되고 왜곡된 현상들을 포착하는 작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항구도시 인천의 다양한 이주와 이동의 역사, 산업화와 도시재생 과정에서 오는 복합적인 주거 문제를 탐구하면서 커뮤니티 및 인권 단체와 연계하거나, 이미지, 인터뷰, 사운드, 아카이브를 시각적 언어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인천 지역 주민 또는 지역사회와의 구체적인 연계 프로그램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심의는 내용적으로 인천의 다양한 레이어와 다층적 감각의 지형을 환기하는 작업들에 대해 주목하여, 지역 사회와 예술계 사이의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이 기대되는 작가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지원자의 기존 작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와 예술적 성취도, 레지던시 참여 동기 및 계획의 구체성, 예술언어의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선정된 작가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와 명확한 창작 계획을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해 작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정 장르나 방식에 국한되지 않은 유연한 접근은 입주작가 간의 교류와 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레지던시에서 선정 작가 모두 비평 프로그램과 동료인 타장르 작가들과의 교류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가들의 작업이 다양한 시각으로 읽히고 작가들의 소기의 계획과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작업에 대한 열정과 내공을 보여주는 젊은 작가들이 작품세계를 더욱 흥미로운 단계로 진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청년 예술가들의 앞으로의 창작과 실험을 응원하겠습니다. 인천의 시민들 역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를 통해 훌륭한 예술 콘텐츠를 경험하고 인천의 새로운 청년 작가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진상(미술평론가,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

박지선(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前인천아트플랫폼 운영자문위원(6기))

차승주(아르코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변순영(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본부장,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

조주현(독립 큐레이터,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 1차 서류 심의위원